

“일념으로 화두 들어 참 성품 찾아야”

성도재일 철야정진 법문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1월 26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화두 참선을 주제로 법문을 했다. 간화선은 한국불교의 대표적 수행법으로, 조계종은 간화선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불교 수행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으로 여겨져 많은 사람들이 간화선 수행을 하다 헤매기도 한다. 25년간 속속의 수행자에게 간화선을 체험시킨 수불 스님은 법문에서 “간화선은 뼈저리게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행해야 한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누구나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며 “특히 눈 밝은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끝까지 일념으로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법문의 요지다.

정리=이은 기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날을 기념해, 오늘 우리 함께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도재일 전날로 여러분께서 화두를 들고 철야 용맹정진을 하시기 때문에, 비록 저도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심스럽지만 한 번 마음을 내어서 ‘화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계종에서는 간화선을 수행의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으로, 우선 화두에 대한 개념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두는 일주일일만 일주일, 한 철이면 한 철, 일 년이면 일 년, 길어야 삼년 안에 결판을 봐야 하고, ‘그 이상 화두 들고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다.’ 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화두는 금생에도 들고, 금생에 깨치지 못하면 다음 생에까지 화두를 놓지 말고 의심해야 한다.” 는 말도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 제가 한 말과 상충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화두는 죽어서도 들어야 한다.’ 는 개념을 머릿속에 각인시킨 분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화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두는 깨닫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화두를 드는 시절인연이 열리면, 그때 결단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 밝은 선지식의 지도하에 화두를 들어야 합니다. 혼자 화두를 들면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다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화두에 대한 공부인연을 제대로 맺는 것이 화두를 올바르게 드는 것입니다.

보통 화두를 강조하기 위해 “평소에 늘 화두를 챙겨라”, “화두를 늘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까닭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인이 화두만 붙들고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다보면, 화두에 매몰되어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눈 밝은 선지식에게 화두 받아야

제가 알고 있는 간화선은 뼈저리게 생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놓고 화두를 간택해서 참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지식을 의지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선지식과 함께 하면 더욱 좋고, 선지식에게 화두를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화두를 드는 것도 무방합니다.

또 선지식한테 화두를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화두를 잘 들고 있는지를 점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점검을 받아서 시간낭비 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혼쫌이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을 마냥 흘려보내는 것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화두를 3년, 5년, 10년 들었습니다.” 라는 소리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화두공부에 매진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데 화두는 말 그대로 ‘의심’입니다. 조사선에서는 화두라는 개념을 정형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공안이 정형화되면서, 공안에 인연되어 일어난 의심이 곧 ‘화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는 말 그대로 의심이어야 합니다.

화두 의심은 성품을 자각하기 위한 의심입니다. 남을 의심하는 의심이 아닙니다. 근원을 살펴서 ‘알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생명의 실상이 무엇인지?’ 이런 근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한 의심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입에 사랑만 물고 있는 것처럼 화두를 물고서 계속해서 굴리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화두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잘 안 되면, 다른 화두를 받아서 또 입에 물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화두는 활구(活句) 화두가 들려져야 하고, 사구(死句)를 들고 의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활구’는 의심하지 않으려 해도 의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구’는 죽은 화두로서, 억지로 붙들어서 살려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공부입니다. 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숨이 다 끊어진 것은 살리고 싶다 하더라도 살릴 수 없습니다. 백날 천날 붙들고 있어야 허망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운이 가슴을 답답하게 짓누르는, 그런 실질적인 의심을 해야 ‘참의심’에서 나아가 활구 의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두가 들려지면 동중일여, 몽중일여가 되고, 그 단계에서 화두일념이 됐을 때를 보인(保任)이라고 합니다. 즉 화두 의심에서 보임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나름대로 세속과 연을 끊고 공부에 진력하는 것을 보임이라 하지만, 그것은 참다운 보임이 아닙니다. 보임은 화두 의심 속에서 이어져야 보



수불스님은 ... 지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년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사미계를, 1977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8년 범어사 승가대학 졸업 후, 1979~1989년 노스님 시봉 및 제법선원 수선안거를 성만했다. 이후 스님은 1989년 안국선원을 개원하고, 부산과 서울에서 간화선 대중화에 앞장 서왔다. 현재 조계종 제14교구본사 금강총림 범어사 주지, 안국선원 선원장, 동국대학교 국제선센터 선원장, 부산불교연합회 회장이다. 저서로 <흔적 없이 나는 새-전심법요 선해(禪解)> 등이 있다.

조계종 수행의 근간인 간화선

생사문제 해결하기 위한 수행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누구에게나 큰 힘 가져다 줘

눈 밝은 선지식에게 화두 받아

기간 정해놓고 참구하며 점검받아야

화두는 성품 자각 위한 의심으로

생명 실상이 무엇인지 눈뜨기 위해

지속적으로 참구해야

입입니다. 화두가 맹렬하게 들려져서,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시절인연이 올 때까지 화두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화두는 짧게 들수록 좋습니다. 또 화두를 들기 위해 ‘면벽수행’을 한다고 하지만, 면벽이란 눈앞에 보이는 벽이 아닙니다. 진정한 면벽은 정신적인 벽으로, 눈앞에 가로놓여서 꼭 막는 ‘의심명어리’입니다. 화두가 들려지면 그 의심을 따라서 앞을 꼭 가로막는 벽이 나타납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24시간, 48시간, 72시간 지속적으로 의심하면 할수록 은

산철벽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든, 화장실 갈 때든, 화두 의심이 지속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정신적인 벽이 눈앞에 가로놓여져 있어서, 공부가 될 때까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의심’을 붙들고 씌우게 됩니다. 그 벽을 마주하고 공부해본 적이 있습니까? 참의심을 들고 의심하게 되면, 그런 벽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100°C로 끓을 때까지 하라

공부를 할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큰 가마솥에 물을 넣고, 100°가 될 때까지 장작불에 풀무질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물이 50°, 60°, 70°로 올라갑니다. 그러다보면 풀무질 하는데 힘이 듭니다. 90°에서 100°로 올릴 때, 말도 못하게 힘이 듭니다. 그때는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90°가 지나면 비등(沸騰)이 되어서, 물이 튀기도 하고 막 끓는 모습이 제법 100°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고, 100°를 넘었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100°가 끓어 넘치게 되면, 언제 끓었다 할 정도로 물의 비등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는 끓는 모습이 없어지고 고요해서, 이게 100°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비등점을 넘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비등점을 넘어 물이 거울같이 평평해졌을 때는, 자기 얼굴을 비출 수 있는 시절인연이 다가옵니다. 아주 명징해지는 것입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할 적에는 방해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은갖 변화가 화두 드는 속에 있지만, 화두에 의지해 끝까지 방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의심해 나가면, 결국에는 맑고 고요한 상태에 들게 됩니다. 시절인연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100° 끓어 넘치게 수행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되니까 70°, 80°쯤 가서 힘이 드니 좀 쉬었다 하자 하고 주춍합니다. 그러다가 또 신심나면 다시 애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좋은 세월 다 보내게 됩니다.

환자는 의사가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되는 것처럼, 화두를 들 때는 곁에 선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가 없으면 났겠다고 몸부림 쳐봤자,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물론 요행수는 있었지만, 확률적으로는 매우 낮습니다. 명의를 만나게 되면 그 분이 병을 낫게 해주는 것처럼, 눈 밝은 선지식을 가까이 했을 때 화두 의심도 제대로 들 수 있고, 나아가 눈을 뜰 수 있는 계기가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보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참선다운 참선을 해본 적이 없게 됩니다. 이듬하여 참선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두참선이 어렵다고 물러서게 됩니다. 그냥 쉽게 호흡하면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마음 내려놓고 생각 끊고 고요하게 있으면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쉽고 편하게 빨리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하지, 힘든 화두 참구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화선 공부를 제대로 알고 공부할 수 있을 때, 누구에게나 큰 변화와 힘을 가져다주는 수행임을 알아야 합니다.

화두를 든 사람들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의심이 제대로 하고 있는 의심인가?” 하면서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 가운데, 경계는 고요하고 바깥 소리는 크게 들립니다. 안에서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간간히 화두가 들려지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 이게 화두가 들려지고 있구나 하면서 혼자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화두를 든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화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끊어지지 않았고, 간혹 가다 나도 모르게 의심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여기에 속으면 공부는 끝입니다. 그것을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화두는 누구든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두가 맹렬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선지식이 호법을 서 줘야 합니다. 본인이 그 화두 속에서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화두가 활발발해지는 그런 현상을 직접 체험하도록, 선지식이 강하게 화두를 각인시켜줘야 합니다. 화두를 한 번 물면 끝까지 늘어져서, 이가 빠지든 목이 끊어지든 화두 의심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니 안 되니 따지지 말고, 정성껏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을 생각해서라도, 그분들을 만난 것이 굉장한 인연이라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의 정법을 믿고, 생사를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도재일을 맞아 여러분도 심기일정 용맹정진 하셔서, 활구참선의 의미(一味)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출강 및 통신 2015학년도 제 24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불교교육(법사) 신입생 모집

뛰어난 불교교육과 법사자격을 원하십니까?

- ◆ 법사교육에 24년의 전통과 학적을 근본으로 하여 법사자격의 신뢰와 품위에 법통을 잇출 수 있습니다.
- ◆ 공정한 법사자격을 갖추고 불교지도자로서의 신생활에 기쁨과 행복을 함께 하여 보십시오.

-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중이 수여됩니다.
-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합니다.
- ④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 ⑤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로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 (1년) · 대법사과정 (2년) · 불학연구원과정 (5년) · 불교석학과정 (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27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 ☎ 051-466-1959 ·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경이로운 최면의 세계 !!

전생요법·빙의치유법

인간의 잠재의식 직접 조절- 강력한 개선효과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도 도울 수 있다

한국최면과학원 임재형 원장 직강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등에서 최면화 강의

KBS 3교시 대한민국

SBS 미워도 다시 한번

MBN 한성포 특종세상

tvN 심영술원 엑스트라 외 각종 케이블 방송 대수 출연

MBC 생방송 오마이

JBC 부도환기

TV조선 가족두끼문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매주 화요일 강의 (1회 무료수강 후 접수 가능)

-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7회 과정)
- ▶ 참가비 : 200만원 (과장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 생 요 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을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 의 치 유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 주 명 리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 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 형사 약사요...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잠재능력 개발의 산실

한국최면과학원

http://www.hypnos114.com

042) 222-0737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